

의미의 전조건

박 인 철

1

그레마스가 선도한 파리학파의 기호학은 주지하다시피 의미의 파악과 생성의 모든 조건을 일관된 상위 언어를 통해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이론이다. 이를 위해 기호학은 발현된 텍스트 아래 텍스트에 논리적으로 선행하고 그 의미를 규정하는 내재적인 구조를 가정한다. 이 내재적인 구조는 심층——의미 실질 *substance sémantique*이 기호 4각형을 통해 분절되어 처음으로 유의적(有義的) 형식 *forme signifiante*을 띠게 되는——과 표층——심층의 논리-의미적 분절 양상이 행동자 구조를 통해 유인적(類人的) *anthropomorphe*인 표현을 부여받는——으로 이루어진 기호-설화 구조 *structure sémio-narrative*와 기호-설화 구조에서 현실화한 요소를 발화를 통해 담화화하는 담화 구조 *structure discursive*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가정으로부터 기호학은 텍스트의 의미를 추상적인 기호-설화 구조에서 구체적인 담화 구조로 발전해가는 생산과정의 결과로 파악한다. 이러한 과정을 기호학은 의미 생성 행정 *parcours génératif de la signification*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 빈틈없어 보이는 이러한 이론적 구축물로서도 설명할 수 없는 요소가 있음은 늘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다. 예컨대 여러 가지 사행(事行) *procès*들이 복잡하게 엉켜 있는 경우나, 변형의 결과로서의 상태들의 경계가 모호하여 연속적인 모습을 띠고 있거나, 또는 상태 자체가 불안정한 경우 등등. 이러한 예는 미감(美感) *esthésis*이나 정념(情念) *passion*을 표현하는 담화에 잘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를 실제 담화를 구성하는 복합적인 요소에서 비롯하는 단순한 의미 효과 *effet de sens*로 간주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레마스의 기호학은 텍스트의 표면에서 발견되는 국부적인 현상, 일관된 의미 조직을 교란시키는 그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오히려 의미 생성 행정 전체를 문제시하려는 계기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레마스가 1991년, 그러니까 그가 타계하기 2년 전 폰타니외 Jacques Fontanille와 함께 내놓은 『정념의 기호학』¹⁾은 기호학의 인식론적인 토대를 다시 세우려는 시도로 간주할 만한 저작이다.

그레마스와 폰타니외는 이 책에서 이제까지 기호 세계의 존재 방식으로 파악된 잠재태 *le virtualisé*, 현실태 *l'actualisé*, 실현태 *le réalisé* 외에 가능태 *le potentialisé*, *potentialité*를 상정하고 있다. 가능태는 잠재태보다 전방에 위치하는 것으로 두 저자는 이를 “의미의 전조건 *précondition de la signification*”의 존재 방식으로 간주한다. 의미 생성 행정에 입각해서 말한다면 의미의 전조건은 잠재태인 기호-설화 계층보다 더 심층에서 작용한다.

정념을 나타내는 형상소(形象素) *configuration passionnelle*를 설명하기 위해 상상적으로 구축한 의미의 전조건에 대한 성찰은 동시에 의미의 발생 *genèse*에 대한 모사 *simulacre*를 제시하고 있다는

1) A. J. Greimas et J. Fontanille, *Sémiotique des passions, Des états de choses aux états d'âme*, Seuil, 1991.

점에서 기호학 이론 전체에 대변동을 가져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기호학 이론은 의미의 생성 과정의 규명에만 집착해왔기 때문이다. 의미의 전조건이란 주어진 의미 세계가 기호 4각형을 통해 분절되고, 불연속적인 단위인 주체와 대상이 설화 프로그램 *programme narratif*을 통해 변형되는 과정 이전의 미분화(未分化)된 *indifférencié* 상태를 말한다. 이 의미의 전조건은 기질(氣質)의 차원 *dimension thymique*, 가치, 행동자 구조, 양상(樣相) *modalité*, 시상(時相) *aspect* 등 기존의 기호학의 기본 개념들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2

기호학 이론에서 가장 완벽하게 구축된 부문은 설화 계층의 통사-의미 부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 설화 단위인 설화 프로그램 *programme narratif*은 행위 주체 *sujet de faire*가 상태 주체 *sujet d'état*와 대상 사이의 연결 *conjonction*과 이접 *disjonction* 관계를 그 반대인 이접이나 연결 관계로 변형시키는 작용으로 정의된다. 한 상태와 변형의 결과인 다른 상태는 서로 단절되어 있다. 즉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은 불연속적 *discontinu*이다. 그레마스의 기호학이 사행(事行)의 생성 *devenir*적인 면을 배제한다는 이유에서 예컨대 코케와 같은 기호학자로부터 “불연속의 기호학 *sémiotique du discontinu*”이라고 비판받기도 하지만,²⁾ 이처럼 설화

2) 그레마스는 사행을 시상 *aspect*을 통해서 파악한다: “시간은 시상화 *aspectualisation*를 통해서 규정되며, 사행은 비록 시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시상을 통해 분절되어야만 인식될 수 있다(A. J. Greimas et J. Courtés,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Hachette, 1979, p. 22). 그런데 코케에 따르면 시상은 시간을 사행의 첫 경계 *borne initiale*와 마지막 경계 *borne*

성을 불연속적인 상태들의 계기로 파악하는 태도는,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의미의 발생과 파악은 우선 의미 단위가 대립을 통해 분절된 불연속적인 단위로 확립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보는 구조주의적 접근 방식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행위 주체의 행위는 그 선결 조건으로서 그에 부합하는 역량 *compétence*을 필요로 한다. 역량은 행위와 달리 “존재하게끔 하는 그것 *ce qui fait être*,” 즉 상태의 차원에 속한다. 그런데 행위의 가능력로서의 역량이 주체의 상태 혹은 존재라고 한다면 이 주체의 상태 혹은 존재를 기호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존재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호학은 자신의 이론적인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학적인 접근 방식을 스스로 금하기 때문이다. 주체의 존재 방식을 알기 위해 언어적인 차원에서 세계와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교섭하는지 알아보자.

그레마스는 자연 세계를 이루는 형상들 *figures*은 지각 *perception*을 통해 의미로 변형된다고 말한다: “세계는 지각하는 육체의 매개를 통해 의미로 변형되고 외향 지각적 *extéroceptif*인 대상들은 내

finale 사이에 포함된 간격 *intervalle*의 구성 양식으로 측정하는 것이며, 이렇게 시상화를 통해 규정된 시간은 분할될 *fractionné*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레마스가 연속성이라고 간주하는 지속상(持續相) *durativité*도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것을 배제한, 단지 두 경계 사이를 채우는 간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cf. J.-C. Coquet, “Temps ou aspect? le problème du devenir,” in *Le Discours aspectualisé*, Pulim/Benjamins, 1991, pp. 198~200). 포티에 역시 *Dictionnaire*에서 자연의 변화와 관련된 *évolution*, *changement*, *devenir*와 같은 용어가 언급되지 않은 사실에 주목한다. 그런데 상태는 그 자체내에 점진적 변화 *évolutif*를 표현하는 요소——예컨대, *Jean vieillit*, *le papier jaunit*, *le vin se bonifie*, *le lecteur a de plus en plus de mal à comprendre ce que l'élite écrit*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를 담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그레마스의 설화 프로그램은 생성을 토대로 해서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cf. B. Pottier, “Un mal-aimé de la sémiotique: le devenir,” in *Exigences et perspectives de la sémiotique, Recueil d'hommages pour Algirdas Julien Greimas*, Benjamins, 1985, pp. 499~503).

면화된다.”; “지각은 인간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으로서 모든 사람의 감각에 주어진 *sens commun*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아울러 이 세계는 우리의 육체 *corps propre*를 통해 의미의 세계에 도달한다.”³⁾ 비록 지각과 언어의 관계를 철저하게 구명하지는 않았지만 지각을 의미 파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본 것은 그레마스가 초기 이론에서부터 줄곧 견지해온 견해이다.⁴⁾ 그런데 지각은 자연 세계를 내면화하고 동질화 *homogénéisation* 하면서 동시에 여기에 자기 수용적 *propriocéptif*인 범주를 덧붙인다. 그레마스는 후에 자기 수용적인 범주라는 용어보다는 쾌(快) *euphorie*/불쾌 *dysphorie*로 이루어진 기질 범주 *catégorie thymique*라는 용어를 주로 쓰는데, 이것은 “생명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의 육체를 느끼고 주변 환경에 대해 반응하는——생명체는 일종의 인력(引力) *attraction*과 반발력(反撥力) *répulsion*의 체계라 할 수 있으니까——방식이다.”⁵⁾ 기호 4각형 위에 표시되는 어떤 의미 범주도 여기에 투사된 기질 범주에 따라 가치를 띠게 되며, 기질 범주에 따라 계열화된 가치의 존재 양식을 기호학에서는 가치 체계 *système axiologique*라고 부른다. 그런데 분노나 절망·공포·경탄과 같은 격렬한 정념에서 보듯 단순한 지각 행위를 넘어서 주체가 특별히 예민한 상태 *sensibilisation*에 놓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태는 담화에 이질성을 도입하는 요소로서 주체를 다른 주체, 즉 합리적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주체로 변형시킨다. 『정념의 기호학』은 지각 주체와는 다른, 느낌의 주체 *sujet sentant*가 세계와 갖는 관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3) *Sémiotique des passions*, op. cit., pp. 12, 324.

4) Cf. A.J. Greimas, *Sémantique structurale*, Larousse, 1966, pp. 8~9, 64~65.

5) A. J. Greimas, *Du Sens II*, Seuil, 1983, p. 93.

일체는 마치 다른 목소리가 느닷없이 자기 고유의 진리를 말하려는 것처럼 이루어진다. 지각의 경우 인간의 육체는 매개적인 역할, 다시 말하면 외향 지각과 내향 지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역할을 하면서, 비록 긴장으로 채워져 있기는 하나, 동질적인 기호 공간을 빚어 냈지만, 이제 살아 있는 살 *chair vive*, '야생적인' 자기 수용성이 자신을 드러내며 육신 전체의 '느낌 *sentir*' 으로서의 제 권리를 주장한다. 이제 자연 세계가 주체를 향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세계의 주인, 세계의 기표임을 선언하고 세계를 자기 방식대로 구상화하고 재조직한다. 이렇게 해서 이른바 자연 세계는 [……] 인간에 대해 존재하는 세계, 인간적이라 부를 수 있는 세계가 된다. 육체의 심부에서 뜨겁게 솟구치고 목을 옥죄는, 디드로의 표현을 빌리면, 이 '열광 *enthousiasme*' 은 물론 근대적인 예이지만 특히 예술 창조나 분노, 절망과 같은, 기호학적 인 의미에서, 온갖 종류의 지나침 *excès* 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⁶⁾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육체, 의미 조직의 중심체로서의 육체가 행하는 인식 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나오는 유명한 마들렌 에피소드를 예로 들어보자. 화자는 여기서 마들렌을 담근 한 모금의 홍차를 마시고 자신의 내부에서 겪은 변형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과자 부스러기가 섞인 그 한 모금의 차가 입천장에 닿는 *toucher* 순간, 나는 나의 몸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소스라쳤다 *tressaillis*. 감미로운 쾌감 *plaisir délicieux* 이 내 몸 안에 들어왔다. 고향 된 원인 모를 쾌감이. 그 덕분에 나는 곧 인생의 덧없음은 대단치 않은

6) *Sémiotique des passions*, p. 18.

것이고, 인생의 재난은 무해한 것이며, 인생이 짧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쾌감이 마치 사랑의 작용처럼 무엇인가 귀중한 본질로 나를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아니 그 본질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나는 이제 내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médiocre*, 우연으로 *contingent*, 죽어야 할 *mortel* 존재라고는 느끼지 않게 되었다.⁷⁾

마들렌 과자가 섞인 한 모금의 홍차가 주체에게 일으킨 변형 이전의 상태와 이후의 상태를 꼬집어내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변형이 일어나기 전 주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우연적이고, 죽어야 할” 몸이었다. 주체의 정체를 부정적으로 규정한 이 계열체로부터 우리는 변형의 결과로서——비록 텍스트에서는 묵시적 *implicite*이지만——전자와 반대되는 ‘훌륭하고 *excellent*’ ‘필연적 *nécessaire*’이고, ‘불멸의 *immortel*’라는 긍정적인 계열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화자는 곧 이 ‘감미로운 쾌감’ ‘벽찬 회열 *puissante joie*’ ‘지복 *félicité*’의 원인이 무엇인가고 자문한다. 기호학적으로 말하면 화자는 인식의 차원 *dimension cognitive*에서 변형의 동작주 *agent*, 행위 주체 *sujet de faire*를 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화자가 현재 느끼는 쾌감과 그 원인이 되는 추억을 연결시키는 작업에서 정신은 별로 유용한 도구가 되지 못한다. 화자는 “정신이 스스로에 의해 초월당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겪는 “심각한 불확실함”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인과 관계를 따지는 추론이 화자가 느끼는 쾌감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또한 시각이라는 지각의 영역도 마찬가지다. 여자의 신체의 일부를 연상시키는 ‘통통하고’ ‘작은 조가비’의 형태 역시 ‘없어지거나 잠들어버려’ 현재의 쾌감과 연결될 수

7) Marcel Proust, *A la recherche du temps perdu* I,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Gallimard, 1954, p. 45.

없기 때문이다. 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추억이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주체는 의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 육체가 행사하는 인력 *attraction*을 따르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화자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지금 나는 다시 한번 정신 앞에 있는 것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그 앞에 아직 멀지 않은 첫 모금의 맛을 다시 가져다 놓아본다. 그러자 깊은 물 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끌어올려질 때처럼 내 자신 속에서 무엇인가가 꿈틀거리며 *tressaillir* 장소를 바꾸어 떠오르려는 것을 느낀다.” 그러자 화자 앞에 어린 시절 그에게 마들렌을 담근 보리수차를 주던 레오니 고모의 방과 이어 콩브레 전체가 되살아난다.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두 사건——두 사건 모두 어머니와 레오니 고모가 마르셀에게 음식물을 주는 행위니까 양자 모두 증여 *don*라는 실화 프로그램이라고 부를 수 있는——이 거리를 뛰어넘어서 현재 순간에 동시에 체험되고 있는 것이다. 두 사건을 일종의 메타포처럼 연결시켜주는 공통분모는 물론 맛 *savoir*이다. 그리고 맛을 느끼는 혀, 즉 신체기관을 통한 대상과의 접촉 *toucher*은 주체와 대상과의 거리를 부정함으로써 양자를 가장 가깝게 근접시키는 지각의 양식이다.⁸⁾ 그 효과는 프루스트가 되풀이해서 사용한 ‘*tressaillir*’라는 표현에서 드러난다. 『로베르 소사전 *Petit Robert*』에는 이 동사의 명사형인 ‘*tressaillement*’을 “생생한 감동이나 예기치 못한 감각에 의해 느닷없이 전신을 흔드는 근육의 요동 전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tressaillement*’은 대상에 대한 주체의 정념적이거나 미적인 반응——“생생한 감동이나 예기치 못한 감각”——이 육체를 통해 표출된 것임을 말해준다.⁹⁾ 프루스트의 텍스트는 이

8) Cf. “대상을 자신의 부속 기관으로 만지는 것은 육체를 대상과 가장 가까운 근접한 거리에 놓는 지각 체계이다” (J. P. Richard, *Microlectures*, Seuil, 1979, p. 263).

9) Cf. A. J. Greimas, *De l'imperfection*, Pierre Fanlac, 1987, p. 31.

반응이 육체와 대상 양쪽에 모두 그 힘을 미쳐서 양자가 순간적인 합일에 도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¹⁰⁾: “그 본질은 나의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라고.

3

마들렌의 에피소드에서 마르셀이 맛을 통해 시간적으로 동떨어진 사건을 무의지적으로 회상함으로써 느끼는 ‘감미로운 쾌감’ ‘벽찬 희열’ ‘지복’은 흔히 주체가 긍정적인 가치 대상과 연결되었을 때 자기 자신의 육체에 대해 갖는 쾌(快) *euphorie*와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호학에서 상위 언어의 차원에서 말하는 쾌는 주체의 판단 작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행동자가 주체임을 판별하는 기준의 하나가 논리학적인 관점에서 판단 *jugement*——혹은 판단의 언어적 표현인 단언 *assertion*——이라는 코케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예의 에피소드에서 문제가 되는 주체를 판단을 갖춘 주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육체를 통해 ‘사물의 정수를 향유하는’ 이 ‘비시간적인 존재’를 우리는 코케의 제안에 따라 ‘비주체 *non-sujet*’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¹¹⁾ 아울러 판단이 결여되어 있는 육체가 대상과 연결하거나 이접한 데

10) 코케는 인식 주체가 대상과 융합을 통해 얻은 지식을 *savoir métaphorique*이라고 부른다. 이 경우 육체는 이러한 지식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도구의 역할을 한다. 이와 달리 인과 관계 *causalité*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얻은 지식을 그는 *savoir métonymique*이라고 부른다. *savoir métaphorique*와 *savoir métonymique*에 대해선, Cf. J.-C. Coquet, *Le Discours et son sujet* II, *Pratique de la grammaire*, Klincksieck, 1985, pp. 27, 30.

11) 주체와 비주체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선, Cf. J.-C. Coquet, *Le Discours et son sujet* I, Klincksieck, 1984, pp. 65~67; “Instances d’énonciation et modalités,” *Cahiers du DLSL*, Université de Lausanne, 1987, pp. 95~99.

서 비롯하는 기질적인 상태를, 비록 자의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코케의 예를 따라 향수(享受) *jouissance*/고통 *souffrance*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¹²⁾ 또한 이러한 주체가 대상에 대해 갖는 관계를 전(前)단언적 *anté-assertif*¹³⁾인 관계, 혹은 후서들을 따라 전(前)술어적 *anté-prédicatif*인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단언적인 관계, 혹은 전술어적인 관계——물론 이 용어에 후서들이 부여한 정의는 사상했지만——에서 주체와 대상——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주체와 대상을 운운하는 것이 다소 위험스럽기까지 한데——사이의 관계는 설화 계층이나 담화 계층에서 볼 수 있는 주체와 가치 사이의 관계와 같지 않다. 여기서 주체와 대상은 설화 계층이나 담화 계층에서처럼 서로 긴장 관계 *tensivité*에 있긴 하지만 이것은 ‘아직 양극화되지 않은 *non encore polarisé*’ 긴장 관계이다. 즉 대상은 아직 가치 체계에 따라 긍정적인 가치 대상과 부정적인 가치 대상으로 분절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강렬하긴 하지만 대상의 긍정성이나 부정성에 관계없이 대상의 가치 그 자체를 인정하는, 고전주의 시대의 ‘경탄 *admiration*’이 그러한 예에 속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주체와 대상 사이에는 단지 인력(引力) *attraction*이나 반발력 *répulsion*만이 작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아울러 주체가 인력이나 반발력을 통해 대상과 결합시키는 가치도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의 가치가 아니라 ‘가치의 그림자 *ombre de valeur*’ ‘가치에 대한 예감 *pressentiment de la valeur*’¹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레마스와 폰타니오는 이처럼 인력과 반발력으로 주체를 대상에 결합시키는 것을, 화학 용어를 차용하여, 가(價) *valence*라고 부른다.¹⁵⁾ 가(價)는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¹⁶⁾으로

12) Cf. J.-C. Coquet, "Temporalité et phénoménologie du langage," in *Sémiotiques*, Didier-Érudition, n° 5, 1993, pp. 23~26.

13) 코케의 표현임. Cf. "Temps ou aspects? le problème du devenir," *loc. cit.*, p. 211.

14) *Sémiotique des passions*, p. 26.

서 가치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가(價)에 부여된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설사 가치 체계의 관점에서 대상이 부정적으로 표지되더라도 주체는 대상에 대해 인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알베르틴에 대한 마르셀의 모순된 감정과 태도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가 될 것이다. 알베르틴은 마르셀에게 결혼의 대상이 되자 곧 일종의 비(非)대상 *non-objet*이 되고 만다. 마르셀에게 권태와 따분함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베르틴이 동성 연애자인 뱅테이오양과 그녀의 친구와 교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자 마르셀은 그녀와 헤어지려는 결심을 거두게 된다. 마르셀의 고통이 그를 그녀에게 끌리게 하기 때문이다. 가치 체계의 관점에서는 불쾌로 표지되지만 동성 연애자의 친구인 이 반(反)대상 *anti-objet*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를 자신에게 끌어들여 주체를 긴장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이다. 알베르틴에 대한 마르셀의 사랑은 이렇게 해서 태어난다.¹⁷⁾

양극화되지 않은 긴장 관계에서 사실 주체와 대상은 설화 계층에서처럼 통사적으로 분명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 주체와 대상은 단지 행동자의 원형 *prototype*으로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주체는 아직 주체로서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그에 근접한 상태 *presque-sujet*에 있는 것이다. 주체는 선지향성(先志向性) *protensivité*의 상태에 있다. 선지향성이라는 용어는 후서를에게서 차용한 용어로 여기서는 생성 행정내에서 통사적인 행동자로 출현하기에 앞서 긴장 상태에 있는 주체를 가치의 그림자만을 갖고 있는 대상에 연결시키는, 방

15) *Ibid.*

16) *Op. cit.*, p. 129.

17) *Op. cit.*, p. 52.

향성을 띤 지향적인 관계를 뜻한다.¹⁸⁾ 주체의 선지향성의 표적인 대상 역시 마찬가지다. 이 단계에서 대상은 통사적인 대상이라 할 수 없고 단지 원형으로서, 즉 대상으로서의 가능성 *potentialité*으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단계에서 설화 계층에서처럼 대상 속에 충당된 가치(혹은 가치로서의 세계)와 대면한 긴장 상태에 있는 주체가 아니라, 주체와 세계가 서로 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주체는 세계에 대해서, 세계는 주체에 대해서——일종의 예감의 층위 *palier de pressentiment*를 상상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레마스과 폰타니오는 양극화되지 않은 긴장 관계에 놓인 주체와 대상을 각각 선주체 *pro-sujet*, 선대상 *pro-objet*이라고 부른다. 아울러 이러한 긴장 관계에서 선주체와 선대상 사이에 존재하는 인력/반발력을 두 저자는 *phorie*라고 부른다. 설화 계층에서 *phorie*는 양극화되면 쾌 *euphorie*/불쾌 *dysphorie*로 분절되는 가치 체계가 될 것이다. 그레마스와 폰타니오는 *tensivité*와 *phorie*를 합친 *tensivité phorique*를 의미 생성 행정의 기원인 의미의 전조건을 이루는 계기로 파악한다.

4

표준 이론에서 생성 행정의 시발역(始發域) *instance ab quo*을 이루는 것은 기호 4각형의 분절 대상이 되는 내용 실질 *substance du contenu*이었다. 이제 의미의 전조건이 인식론적으로 심층에 자리잡으면서부터 *tensivité phorique*이라는 긴장의 공간이 의미 출현의 원초적인 조건이 된다. 그런데 파리학파내에서 이미 70년대말부터

18) Cf. J. Fontanille, "Les passions de l'asthme," *Nouveaux actes sémiotiques* 6, Université de Limoges, 1989, p. 19, note 7.

프티토 Jean Petitot는 표준 이론에서 정의한 기저 의미 *sémantique fondamentale*의 성격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나름대로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왔다. 지금 우리의 논의에 비추어 프티토의 견해가 시사하는 바도 크고 아울러 예의 *tensivité horique*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프티토가 기저 의미로 제안하는 '비의미적인 프레그넌시 *prégnance asémantique*'와 비록 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의 용어를 우회적으로나마 설명하기 위해 프티토가 제안한 용어를 설명해보기로 하겠다.

프티토는 우선 표준 이론이 기저 의미에 부여하는, 언표될 수 있는 의미, 혹은 언어학적인 의미에서의 '가치'를 부정한다. 주지하다시피 표준 이론에서 기저 의미를 구성하는 것은 기호 4각형을 통해 분절되는 범주적이고 추상적이고 심층적인 내향 지각적 의소 *sème intéroceptif*이다. 내향 지각적 의소는 자연 세계를 구성하는 외향 지각적 의소——그레마스가 『구조 의미론』에서 이른바 기호적 계층 *niveau sémiologique*이라고 지칭한 구상적인 계층——와 달리 의미적 계층 *niveau sémantique*을 구성한다. 그것은, 예컨대 그레마스가 개인적인 가치 체계와 집단적인 가치 체계에 따라 의미 세계를 분절하는 두 가지 범주라고 지정한 삶/죽음, 자연/문화나 남성/여성, 동일성/이타성과 같은 범주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의소는 담화의 전체적 *global*인 의미의 동위성 *isotopie*을 확보해주는 분류소 *classème*로 작용한다. 문제는 표준 이론에서 주어진 담화에 동질적인 의미를 부여해주는 이 기저 의미가 언표될 수 있고, 의미적으로 분절된 의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 데 있다. 프티토에 의하면, 만일 그레마스가 확립한 기저 의미부가, 레비스트로스가 신화 분석에서 추출한 '무의식적인 약호 *code inconscient*'를 기호학적인 관점에서 정식화한 것이라면,¹⁹⁾ 기저 의

19) Cf. A. J. Greimas, "Pour une théorie de l'interprétation du récit mythique," in *Du*

미는 결코 의미 단위로서의 성격을 떨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이 약호를 구성하는 상징적인 요소를 상위 언어의 차원에서 적절히 어휘화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언어를 통해 있는 그대로 접근할 수 없는, 말하자면 거의 표상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기저 의미를 구성하는 이러한 상징적 요소는 ‘비의미적 *asémantique*’이다. 아울러 그는 톰 René Thom의 이론을 원용하여 기저 의미는 “형식의 견지에선 범주화하고 내향 지각적이지만, 실질의 견지에선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prégnant* 있다”고 말한다. 이 비의미적인 프레그넌시는 비록 수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통합체의 차원에서 설화 구조를 최대한도로 규정하고 설화 구조에 목표를 부여한다. 또한 표상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설화 조직을 통하지 않고서는 파악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표상의 문법적 형식(즉 세계의 본질)이 언표될 수 없고 *indicible* 설명될 수 없는 *inexprimable* 것이라 언어 속에서 표현되지 않고 다만 논리학에서처럼 상징의 사용 규칙의 형태로 자기 자신을 지시하듯이 *se montrer*, 비의미적인 프레그넌시 역시 행동의 논리를 분절하는 행동자 구조와 설화 통사를 통해 제시될 수밖에 없다.²⁰⁾ 이러한 이유에서 프티토는 기저 의미로서의 의미 실질에 대해 표준 이론이 부여한 것과 다른 정의를 내린다.

나로선 기호학이 인간의 상상력에 대한 구조인류학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한, 제일차적인 질료 *materia prima*——현상학적인 의미에서 *hylé*——로 취해야 할 실질은 내용의 실질이 아니라 상상력의 차원에서 순순한 매개체 *un pur médium imaginaire*——생물학적인 조절 작용과 ‘언표될 수 없는’ 절대에 대한 이상화 사이에 팽팽한 긴장 상태에 있

Sens, Seuil, 1970.

20) J. Petitot, *Morphogenèse du sens*, P.U.F., 1985, pp. 50, 220~21.

는——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여기서 ‘상상력’이라는 용어는 허구적인 표상을 만들어내는 조작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위심리학적 *métapsychologique*인 의미에서의 상상력이다. 그것은 계통 발생으로부터 유전된 동물적인 온갖 어두운 충동을 담고 있는 육체가 갖고 있는 상상력, ‘무의식적’이고 완전히 기질적이고 정동적(情動的)인 상상력이다. 이 상상력은 포식(捕食) *prédation*과 성욕 *sexualité*의 조절 과정에 뿌리를 둔, 요컨대 아직 상징화되지 않은(상위심리학적인 의미에서)——우리는 차라리 ‘아직 주관화되지 않은’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 이유는 ‘주관화’라는 표현은 ‘자각’이라는 과정과 동일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비의미적인 상상력이다. 여기서 메를로-퐁티가 규명하려고 했던, 철저하게 후서률적인 용어인 살 *chair*이라는 용어——삶 *Leben*과 관련된 육체 *Leib*로서의——를 다시 취해봄직도 할 것이다. 만일 구조라는 개념이 형식의 차원에서 기호학의 기저 개념이라 한다면, ‘살로서의 상상력 *l’imaginaire comme chair*’이라는 개념은 실질의 차원에서 기호학의 기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¹⁾

프티토가 말하는 “살로서의 상상력,” 즉 비의미적인 프레그넌시는 언표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의미에 있어서 일종의 블랙 박스 *boîte noire*라고 할 만한 것이다. 이 순수한 실존적 가치——생존과 직결된 포식과 성욕이 문제시되기 때문에——는 일단 통사적인 대상에 충당되면 주체에게 의미를 띤 가치로 전환 *conversion*되며, 아울러 주체가 이 대상을 포획 *capture*하는 설화 프로그램을 세우고 실현할 수 있게끔 주체를 유도한다. 언표될 수 없는 실존적 가치가 주관화되는 것도 이 설화 프로그램을 통해서다. 그런데 그레마스의 *tensivité phorique*에 대응하는 프티토의 비의미적인 프레그넌

21) J. Petit, “La sémiotique face à l’imaginaire comme chair,” in *Exigences et perspectives de la sémiotique*, p. 284.

시 역시 인력과 반발력으로 이루어진 기질적인 것이다. 그것은 이러저러한 의미태 *sémantisme*에 투사되어 이것을 가치로 전환시키는 궤/불궤의 평가적인 기질 범주에 선행하는 ‘선평가적 *pré-évaluatif*’ 이자 ‘선기질적 *proto lyrique*’²²⁾인 계층을 이룬다. 따라서 프티토에게 문제가 되는 일은 이 비의미적인 프레그넌시로 이루어진 계층을 표준 이론에서 내향 지각적인 의소들로 이루어졌다고 파악한 기저 의미로 전환시키는 적절한 과정을 기술하는 일일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의 주제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5

이제 의미의 전조건(前條件)의 계층이 표준 이론에서 말하는 설화 계층과 담화 계층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전환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자. 우리는 앞에서 의미의 전조건의 계층에서는 선주체와 가치의 그림자에 불과한 선대상이 양극화되지 않은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선주체와 선대상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접합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설화 계층에 속하는 상태나 변형은 언급할 계제가 되지 못한다. 선주체와 선대상 사이에는 단지 인력과 반발력이 ‘상호 연대적으로 작용하는 긴장 *tension fiduciaire*’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 일단 선주체가 선대상에 대해 앞에서 말한 선지향성 *protensivité*을 띠게 되면 이 긴장의 공간이 불균형적인 상태에 들어가면서 양자 사이에 분열 *scission*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의미 발생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것이다. 아울러 한마디 덧붙이자면, 미적인

22) *Op. cit.*, p. 293.

감동이란 분열되어 있는 주체와 대상, 혹은 주체와 세계가 분열되기 이전의 상태, 다시 말하면 ‘범주화되기 이전의’ 미분화된 상태인 *tensivité phorique*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²³⁾

그레마스와 퐁타니오는, 선주체와 선대상 사이에 일어나는 분열은 연속적으로 변조(變調) *modulation*와 단속화(斷續化) *discretisation* 두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상상한다. 변조란 생성 *devenir*의 상태에서 분열이라는 사행이 취하는 시상적(時相的)인 국면이다. 단속화는 변조의 시상적인 국면에 적용되는 범주화 *catégorisation*인데, 이것은 변조의 결과를 다시 취해서 *tensivité phorique*의 긴장의 변화와 설화 계층에 속한 양상 범주 사이에 관계를 확립한다. 변조와 단속화는 각각 담화 계층에서 실현되는 시상(時相) *aspect*과 설화 계층에서 실현되는 양상 *modalité*의 선(先)형태라고 할 수 있다. 두 저자는, 변조는 수많은 형태를 취할 수 있지만 양상과 관련지어 특히 네 가지 변조, 즉 ‘개시적(開始的) *ouvrant*’ 변조, ‘종결적(終結的) *clôurant*’ 변조, ‘가동적(可動的) *cursif*’ 변조, ‘점팔적(點拍的) *ponctualisant*’ 변조를 강조한다. 개시적 변조, 가동적 변조, 종결적 변조는 발화 호출 *convocation énonciative*을 통해 담화 계층에서 각각 기동상(起動相) *inchoatif*·지속상(持續相) *duratif*·종료상(終了相) *terminatif*이 된다. 그리고 앞의 세 변조와 점팔적 변조는 설화 계층에서 각각 *vouloir*, *pouvoir*, *savoir*, *devoir*로 전환된다²⁴⁾: “*vouloir*의 원형은 지향 효과 *effet de visée*를 일으키는 개시 *ouverture*에서 비롯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 긴장

23) Cf. *Sémiotique des passions*, p. 30; A. J. Greimas, *De l'imperfection*, op. cit., pp. 92, 215.

24) 그레마스와 퐁타니오는 의미의 전조건을 기호-설화 계층으로 이행시키는 조작을 전환 *conversion*이라 부르고, 전자를 담화 계층으로 이행시켜 이를 담화화 *mise en discours*하는 조작을 호출 *convocation*이라 부른다.

의 계층에서는 생성의 가속화를 통해서 그 실체가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위치에 나타나는 *vouloir*는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개시 혹은 새로운 가속화를 결정지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savoir*의 원형은 지향 효과와 반대되는 정지 효과 *effet de saisie*를 일으킴으로써 생성을 마감시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생성의 흐름을 멈추게 하고 그 진전의 국면을 측정할 것이다. [……] *pouvoir*의 원형은 생성의 흐름을 지속시키고 그 변동에 동반함으로써 분열을 조성하는 불균형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 *devoir*의 원형은 일종의 생성의 중지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일자(一者) *un*’의 융합 대신 ‘전체 *tout*’의 일관성을 제시함으로써 생성을 다른 종류의 필연 *nécessité*으로 변형시킬 것이다.”²⁵⁾ 비록 실현되는 계층이 다르더라도 양상화와 시상화는 그 토대가 같기 때문에 실사 실화 계층에서 어떤 양상이 발현되지 않았더라도 담화 계층에서 지배적인 시상이 관찰되면 이 시상에 대응하는 변조가 심층에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이 변조에 대응하는 발현되지 않은 양상의 조직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주저 *bésitation*’는 개시적이자 동시에 중지적인 변조가 심층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양상의 차원에서는 *vouloir*와 *ne pas vouloir*가 착종된 형태로, 시상의 차원에서는 기동상과 지속상으로 발현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선지향성은 상호 연대적인 긴장 관계로 중합(重合) *syncrétisme* 상태에 있는 선주체와 선대상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양상의 밑그림을 제공했다. 하지만 선지향성만을 띠고 있는 단계에서 주체가 세계를 자기와 구별되는 대상으로서, 즉 인식 가능한 대상으로서 정립한 것은 아니다. 세계의 가치

25) *Sémiotique des passions*, pp. 36~37.

도 주체는 다만 그 그림자만을, 특히 미감(美感)을 통해서 느끼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세계를 인식하기 위해서 주체는 생성의 연속적인 전개를 멈추게 하고 거기에 불연속성의 범주를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만 주체는 가치의 그림자의 배후에 대상을 인식하고 이를 가치 대상으로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주체와 대상이 두 독립된 행동자로 정립되고 이에 따라 선주체와 선대상 사이에 존재했던 긴장이 두 행동자에 배분되면 *tensivité phorique*의 내적인 역동성은 안정된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 도달할 때야 비로소 주체는 가치의 그림자를 의미의 기본구조로 대치시킬 수 있고, 표준 이론에서 구축한 의미 생성 행정을, 불연속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이다.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참 고 문 헌

- Coquet, Jean-Claude, *Le discours et son sujet* I, II, Klincksieck, 1984, 1985.
- , “Instances d’énonciation et modalités,” *Cahiers du DSL*, Université de Lausanne, 1987.
- , “Temps ou aspects? le problème du devenir,” in *Le discours aspectualisé*, Pulim/Benjamins, 1991.
- , “Temporalité et phénoménologie du langage,” in *Sémiotiques*, Didier-érudition, n° 5, 1993.
- Fontanille, Jacques, “Les passions de l’asthme,” *Nouveaux actes sémiotiques*, Université de Limoges, 6, 1989.
- Greimas, Algirdas Julien, *Sémantique structurale*, Larousse, 1966.
- , *Du Sens*, Seuil, 1970.

- (avec J. Courtés),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 Hachette, 1979.
- , *Du Sens* II, Seuil, 1983.
- , *De l'imperfection*, Pierre Fanlac, 1987.
- (avec J. Fontanille), *Sémiotique des passions, Des états de choses aux états d'âme*, Seuil, 1991.
- Petito, Jean, "La sémiotique face à l'imaginaire comme chair," in *Exigences et perspectives de la sémiotique, Recueil d'hommages pour Algirdas Julien Greimas*, Benjamins, 1985.
- , *Morphogenèse du sens*, P.U.F. 1985.
- Pottier, Bernard, "Un mal-aimé de la sémiotique: le devenir," in *Exigences et perspectives de la sémiotique*.
- Proust, Marcel, *A la recherche du temps perdu* I,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Gallimard, 1954.
- Richard, Jean-Pierre, *Microlectures*, Seuil, 1979.